

다카에 대한 연방법원의 판결

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018년 1월 9일 판결(정확히는 판결이 아닌 임시 금지 명령)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불허하며, 폐지 결정이 공지되었던 9월 5일 전 처럼 다카 갱신 신청서를 계속 접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. 한편 트럼프 행정부측은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1월 16일에 밝혔습니다. 갱신 신청서를 신속하게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.

누가 갱신 신청을 할 자격이 되나요?

⇒ 이민국은 지금 다카 갱신을 받고 있습니다

- 2016년 9월 5일 이전에 다카가 만료된 분은 갱신신청서가 아닌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
- 다카가 만료된지 1년 미만인 되는 분은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
- 다카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[지정된 이민국 사무실\(클릭\)](#)에 보내면 됩니다:
 - 판결 이후 이민국 새 지침을 반영한 [이민국 웹사이트\(클릭\)](#)를 참고하세요.
 - I-821D, I-765, I-765 Worksheet. 상기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
 - 신청비 (\$495) 또는 신청비 면제요청서. 신청비는 “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” 앞으로 작성해야 합니다
 - 여권크기 증명사진

⇒ 다카 여행허가서(Advance Parole)는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됩니다. (다카 여행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)

⇒ 신규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. (하지만 상기에 명시된 9월 5일 이전에 만료되었다가 이제 갱신하면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하는 분의 케이스는 이것과 다릅니다)

판결의 상황

⇒ 이 판결은 영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. 트럼프 행정부는 이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.

⇒ 드림법안 같이 의회에서 통과되는 법안만이 유일한 영구적 해결책입니다.

다카 갱신에 포함 된 리스크

⇒ 추후 정치적인 상황, 소송의 진행 상태에 따라, 모든 신청자들이 접수를 거부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

⇒ 신청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

⇒ 마지막으로 다카를 신청 한 후 이사를 한 경우라면, 이민국은 이번 갱신을 통해 여러분의 최신 주소를 수중에 넣는 셈이 됩니다.

가능하면 신청에 대해서 이민 변호사나 믿을 수 있는 법률 종사자와 상담하십시오

⇒ 자신에게 무슨 선택지들이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세요

⇒ 다카 외에 영구적인 이민 신분으로 이르는 선택지의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

도움을 받으십시오

⇒ 미교협 상담 및 긴급상황 대응 라인 844-500-3222 으로 전화하시면 이민자서의 권리에 대해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⇒ 현재의 다카 혼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는 이들을 주의하세요. 서류 처리를 해주는 회사 또는 개인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그것을 확인하세요. 서비스 제공에 대한 서면 계약과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세요.

⇒ 지금은 범죄, 음주운전, 구금, 체포를 받을 때가 아닙니다. 범죄 기록이 있으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 일부 유죄판결의 경우 내용을 조정해서 이민 절차에 영향을 덜 끼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문의: 미교협 핫라인

1-844-500-3222

